

세월호의 아픔 추모행사로 승화

김제동초등학교, 한달간 종이배 · 협동걸개그림 전시회 등 세월호 희생자 추모 행사

수업종이 울리자 선생님은 가슴에 노란 리본을 단 채 교실 문을 연다. 선생님은 학생들을 향해 왜 리본을 달고 왔을까를 묻는다. 또 세월호를 왜 기억해야 하는지 이야기한다.

전교생 5백35명의 김제동초등학교의 특별한 세월호 희생자 추모 행사가 눈길을 끈다.

김제동초교(교장 강일순)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4월 한달을 추념의 달로 정하고 5일에는 학부모 30여명이 팽목항과 목포신항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한데 이어 6일에는 전교생이 참여하는 계기교육을 진행했다.

학생들에게 안전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교육목표이다.

전교생이 학급에서 진행된 계기교육은 3백4명의 희생자들과 아직 미수습된 9명의 사고의 원인, 안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며 시작되었다.

학생들은 세월호 영상을 보며 떠오르는 자신의 감정과 이유를 말하고 함께 슬픔을 나누며 안전한 생활에 대해 다짐하였다.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언니, 오빠들에게 전하는 말을 써서 노란배 접기를 하고 희생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편지로 쓰고 함께 읽고 감상하면서 자신들의 생각을 발표하기도 했으며 학급 친구들과 걸개그림을 완성하고 토론하면서 계기교육을 마쳤다.

특히 교사들은 학생들의 심리 정서



전교생 5백35명의 김제동초등학교의 특별한 세월호 희생자 추모 행사가 눈길을 끈다. 학교 정문 담장에는 학생들이 참여해 노란 리본 울타리를 만드는 행사도 진행되었다.

적 상태를 파악하여 계기교육에 활용하는 동영상, 사진 등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김제동초교는 이같은 계기교육과 별도로 학년별 다양한 참여 행사도 마련했다.

유치원과 1~2학년 학생들은 노란 종이배를 만들면서 세월호를 기억했

고 3~4학년 학생들은 추모엽서 전시회를 통해 희생자들을 위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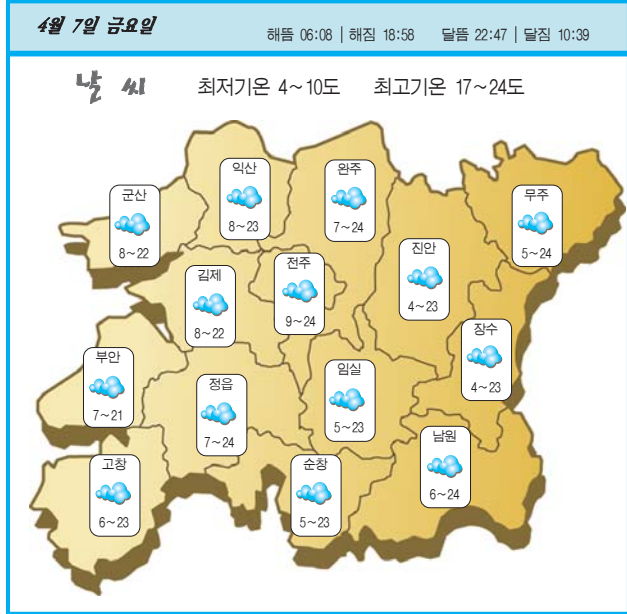
5학년 학생들은 시화전과 세월호 추모 현수막을 만들었고 93명의 6학년 학생들은 함께 모여 협동걸개그림을 그리고 전시했다.

또 학교 정문 담장에는 학생들이 참여해 노란리본 울타리를 만드는 행사

도 진행되었다.

강일순 교장은 "세월호 참사가 3주년을 맞았지만 우리 학생들의 충격과 상처가 아직도 깊다는 걸 느낀다.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며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러한 추모행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세월호 참사 3주년

전국 교육청 · 학교 다양한 추모행사 진행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아 전국 교육청과 학교에서 다양한 추모행사를 진행한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는 전국 교육청과 학교에서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는 공동추모주간(10일~16)을 선포하고, 지역 실정과 특색을 고려한 각 교육청과 학교별 추모사업 진행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날 16일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부산 총회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공동 추모사업을 통해 전국의 학생과 교직원들은 단원고 학생과 교

원 등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미수습자의 조속한 귀환을 기원한다. 또한 참사의 의미와 역사적 교훈을 되새겨 안전한 학교 문화 조성 및 생명과 인권 존중 의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사이버 추모관 운영, 추모 공모전 및 전시회 · 문화제 개최 등 추모문화 사업, 추모식 및 참사 현장 방문, 안전 관련 수업 · 특강 및 세미나 개최, 그리고 단위 학교별 계기 교육 및 자체 추모 행사를 진행하고 있거나 또는 예정되어 있다.

/정해은 기자

제8기 학생기자단 82명 오리엔테이션

전북도교육청 제8기 학생기자단이 8일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기자교실과 취재활동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도교육청은 이에 앞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8기 학생기자단을 공개모집했으며 차제 심사를 거쳐 초등 6학년 22명, 중학생 30명, 고등학생 30명 등 총 82명을 선발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학생기자단을 대상으로 8일 전주역사 박물관 강연장에서 오리엔테이션을 갖고 연간 활동 계획 안내와 신문기사 쓰기, 사진 촬영 교육을 하게 된다.

앞으로 임승수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작가와 함께 인문학 소양교육은 물론 내달부터 토요일 초·중·고, 고등반으로 나눠 함께 만드는 신문 제작과정 교육도 이어질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퇴 신청 · 접수

25일부터 28일까지

전라북도교육청은 2017년도 상반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받는다.

명예퇴직 예정일은 6월 30일이다. 신청 대상자는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정년퇴직일까지 1년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어야 한다.

감사원 등으로부터 징계의결이 요구되어 있거나 징계처분으로 승진인용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명예퇴직 신청이 제한된다.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이거나 감사

기관 ·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등도 명예퇴직을 할 수 없다.

도교육청은 내달 26일까지 명예퇴직자를 대상으로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명예퇴직자를 결정하며 예산 부족시 우선 순위(상위직→장기근속 공무원)를 고려해 대상자를 결정하게 된다.

명예퇴직자로 결정되면 퇴직과 동시에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한다. 또 명예퇴직로 선정된 사람 중 인사위원회의 심사 후 특별승진인용도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전북대 의전, 세계 알레르기 주간 캠페인

'두드러기' 포함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 교육 무료 알레르기 폐기능 검사 · 전문의 특강 등 진행

2017 세계 알레르기 주간을 맞아 전북대에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얻고 무료검사까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고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전북대 의학전문대학원 NCIER 호흡기질환 T2B 기반 구축센터와 대한 천식 및 알레르기학회 전북지회는 오늘까지 전북대 진수당 로비에서 세계 알레르기 주간 캠페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올해의 알레르기 질환인 '두드러기'를 포함한 다양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위한 무료 알레르기 및 폐기능 검사가 하루 종일 진행된다.

또한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수당에서 매일 전문의가 참여하는 알레르기 특강이 진행돼 많은 정보 제공의 장이 되고 있다.

5일에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천식과 비염에 대한 특강이 진행돼 많

은 이들의 호응을 얻었다.

6일에는 두드러기를 주제로 한 특강이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이용철 교수는 "이번 세계 알레르기 주간 캠페인 행사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많은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며 "특히 국내 유일 보건복지부 지정 호흡기 및 알레르기 질환 제품 유효성 평가 연구단인 NCIER 호흡기질환 T2B 기반 구축센터에 대한 홍보도 이뤄지고 있어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수업내용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_ 두 번째 이야기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간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에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학교를 지켜주세요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